

## 중세 부산의 역사와 “만덕동 사지”\*

이 중 봉\*\*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중세 부산의 군현 변동과 동평현
- III. “만덕동 사지”의寺名과 위상
  - 1. 사역과 사명
  - 2. 출토 유물을 통해 본 위상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고는 만덕동 사지의 공간적 장소와 출토 유물 등을 통해 검토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덕동 사지는 고려에서 조선초기까지 東萊縣·郡과 梁州·梁山郡의 속현이었던 東平縣의 공간적 범위 내에 있었다. 동평현은 仙岳寺鐘銘을 통해 戶長과 諸長吏 등의 향리세력이 존재하였고, 이들의 지배를 받았다. 동평현에는 동평이씨 등의 土姓이 존재하였고, 이들 세력은 낙동강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다. 동평현의 지배세력은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덕천동 고분군을 축조하였을

\* 본 논문은 ‘만덕동사지와 고려시대 부산불교문화’ 학술지포지엄(2021년 7월 2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최) 때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 [leejb@pusan.ac.kr](mailto:leejb@pusan.ac.kr)

뿐만 아니라 만덕동 사지와 선악사 등의 주요 단월로 존재하였다.

둘째, 만덕동 사지는 국장생, 당간지주, 3차의 발굴에서 드러난 금당, 사지 주위의 유물 산포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범위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다. 만덕동 사지의 사명은 ‘祇毗寺’의 기와 명문과 <金山寺香完銘>에 ‘祇毗寺’의 기록, 그리고 부산·경남지역에서 최근 발굴된 사지의 명문과 문헌에 기록된 사명이 일치하는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기비사’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만덕동 사지는 3차에 걸친 발굴에서 금당지의 규모, 그리고 고급의 상감 청자, 치미, 잡상 등의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고려할 때 高麗 12·1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최고의 사세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키워드 : 東平縣, 祇毗寺, 金山寺香完銘, 鷗尾, 雜像

## I. 머리말

현재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위 “만덕동 사지” 절의 명칭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그것은 『고려사』·『고려사절요』 등의 자료에 충혜왕의 서자인 釋器가 귀양 간 곳이 ‘萬德寺’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불교사전』과 『부산시지(하)』 등을 서술하면서 『고려사』에 기록된 만덕사가 현재 북구 만덕동 사지에 위치하였던 사찰이라고 비정하였고,<sup>1)</sup> 이후 그러한 견해가 일정하게 수용되었다.

하지만 만덕동 사지에 대해서는 1990년 10월 8일~12월 1일까지 1차 발굴 때 금당지로 추정되는 부분을 조사하여 금당지의 규모와 많은 출토 유물을 확인하였고,<sup>2)</sup> 1996년 9월 20일~12월 30일에 걸쳐 진행된 2차 발굴은 금당지의 유구 확인을 위해 추진하였고,<sup>3)</sup> 그리고 2001년 9월

1) 통도사 법보원, 『불교사전』, 196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지(하)』, 1974.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I)』, 1989.

2) 부산박물관, 『부산만덕사지(유적조사보고서 제7책)』, 1993.

23일~2002년 1월 31일까지 3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는데,<sup>4)</sup> 그때 고급의 청자, 잡상, 치미 등을 비롯한 여러 유물과 함께 ‘祇毗寺’란 명문기와를 조사하면서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sup>5)</sup> 이후 만덕동 사지의 사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진전되지 못한 측면에 있었다. 다만 최근 『동국여지승람』의 其比峴과 만덕동의 명칭에 대한 언어학적 관계의 검토를 통해 만덕동이란 지명 사용 시기의 연구는 앞의 사명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보완한 측면이 있다.<sup>6)</sup>

한편 중세 부산지역의 군현인 동래군(현)과<sup>7)</sup> 동평현, 그리고 기장현 등의 지역에는 범어사와 만덕동 사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찰이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 만덕동 사지는 사명과 함께 부산의 어느 군현의 영역(공간) 하에 있었는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사찰이 군현의 지배세력인 토성세력의 존재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덕동 사지는 동래군(현)과 많은 연관 하에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만덕동 사지”는 중세 동래현과 연관을 가졌는지 아니면 동래현과 양주의 속현이었던 동평현의 영역 속에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중세 부산지역의 군현 변동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래현과 동평현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해 보고, 지금까지 부

3) 부산박물관, 『부산만덕사지』Ⅱ, 1998.

4) 복천박물관, 『부산만덕사지』Ⅲ, 2007.

5) 송계현·최정혜, 「萬德寺址 發掘調査概報」, 『연보(부산시립박물관)』13, 1991; 최정혜, 「부산 만덕동사지 사명 고찰」, 『부산박물관연구논집』11, 2004; 「부산 송선사지와 출토 유물」, 『부산박물관연구논집』15, 2009.

6) 이근열, 「부산 기비현(其比峴) 말말 연구」, 『지명학』13, 2007;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부산지명 연구」, 『우리말연구』41, 2015.

7) 동래현의 명칭은 고려 현종 9년 이후부터 조선전기 동래부로 승격되기 이전까지 사용되었다. 동래의 군현 명칭에 대해서는 현종 9년 이전은 동래군, 이후는 동래현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다만 현종 9년 이후라도 『고려사』 등의 자료에 동래군으로 기록된 경우는 그대로 동래군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혀둔다.

산지역사에서 중요하게 서술하지 못했던 동평현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그것은 고려시기 속현이 독립된 조세수취의 단위였으므로,<sup>8)</sup> 동평현도 독립된 군현으로 주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동평현의 공간적 범주 내에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는 덕천동고분군을 주목하고자 한다. 고려시기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고, 유물의 피장자가 어떤 세력이었고, 이들이 동평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중의 하나인 고급 청자는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지에서 출토된 고급 청자와 갑상에 대해서도 검토할 뿐만 아니라 ‘祇毗寺’란 명문이 가지는 의미를 부산·경남지역 고려시기의 사지발굴에서 조사된 명문기와와 비교 검토를 통해 명문기와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만덕동 사지의 위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중세 부산의 군현 변동과 동평현

중세 군현의 변동은 정치사회적 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부산지역의 군현변동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부산지역 군현의 변동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로 정리되었지만,<sup>9)</sup> 이를 『삼국사기』를 통해 다

8) 박종진, 「고려시기 ‘수취단위’의 의미와 속현의 지위」, 『역사와 현실』 32, 1999. 반면 속현은 주현에 부과된 조세 총액이 배분되었다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박종기, 「고려시대 賦稅收取와 屬縣」, 『역사와 현실』 31, 1999).

9) 정용숙, 「고려 지방제도의 정비와 부산」, 『부산시사(1)』, 1989. 정용숙, 「고려시대의 동래」, 『동래구지』, 1995; 「신라·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정비와 기장」, 『한국민족문화』 8, 1996. 김기섭,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국민족문화』 8, 1996. 구산우,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 『향도부산』 20, 2004. 이종봉,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향도부산』 20, 2004.

시 한번 살펴보자.

<자료 가>

A)東萊郡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東平縣本大飢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縣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  
기』권34, 지리1 신라 동래군)

위의 <자료 가>에 의하면 동래군은 거칠산군이었는데, 경덕왕 때 동래군으로 변경되었고, 기장현과 동평현을 영현으로 두고 있었다. 그리고 경덕왕 때 기장현은 갑화양곡현에서, 동평현은 대증현에서 군현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즉 부산지역 군현 명칭의 변동과 함께 영속관계의 조정은 부산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덕왕 16년(757) 전국적 군현 명칭과 영속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8세기 동래군은 부산지역의 거점으로 부각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후 부산지역의 군현 변동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 자료에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는 건국 이후 군현제도를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따라 개편하였다. 특히 태조대는 군현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州와 府로 개편된 것이 많았다.<sup>10)</sup> 특히 후삼국 통일 이후인 23년(940)에 군현의 명칭 변경과 함께 영속관계를 조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신라 때 9주인 良州는 梁州로 개명되었고,<sup>11)</sup> 아래 자료 <나-C>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래군의 영현이었던 기장현을 이속시켰다. 이처럼 부산지역은 고려의 후삼국통일 직후에 군현변동이 이루어졌는데, 현종 9년에는 더 큰 변동이 있었음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살펴볼

10) 박종기, 「고려 태조 23년의 군현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19, 1988. 정요근, 「후삼국시기 고려의 州·府 분포와 그 설치 의미」, 『역사와 현실』 73, 2009.

11) 『고려사』권57, 지리2 경상도 양주.

수 있다.

<자료 나>

A)東萊縣本新羅居柒山郡 景德王 改爲東萊郡 顯宗九年 來屬 後置縣令 有溫泉(『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울주 동래현).

B)東平縣本新羅大飢縣 景德王 改今名 爲東萊郡領縣 顯宗九年 來屬 有絶影島(『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양주 동평현)

C)機張縣本新羅甲火良谷縣 景德王 改今名 爲東萊郡領縣 後移屬 顯宗九年 又移屬蔚州 後置監務 別號車城(『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양주 기장현).

위의 <자료 나>는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인데, 동래군은 현종 9년 울주의 속현으로 전락하였다가 어느 시기에 현령이 파견되었고, 동평현은 현종 9년 동래군에서 양주의 속현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기장현은 태조 23년 양주로 이속되었다가(後移屬),<sup>12)</sup> 현종 9년에 다시 울주의 속현으로 이속되었고, 후에 감무가 파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3)</sup> 즉 부산지역의 군현은 현종 9년에 지방관을 파견되지 않았고, 지방관이 파견된 하나의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복수의 속현이 결합된 ‘주현·속현제도’가 적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동래군이 동래현으로 강등된 시기는 언제일까? 먼저 기록을 살펴보면 위의 『고려사』 지리지에는 현종 9년에 울주로 래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현종 무오(9년)라고<sup>14)</sup> 기록한 반면, 『경상도지리지』에는 고려 때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고,<sup>15)</sup> 『동국여지승람』

12) 정용숙, 앞의 논문, 1996. 김기섭, 앞의 논문, 1996.

13) 기장현의 군현 변동 과정은 만덕동 사지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후 서술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14) 東萊縣 判縣事一人 本居漆山郡 景德王改今名 顯宗戊午 屬蔚州任內 後置縣令(『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동래현).

의 동래현 건치 연혁조에는 현종대라고만 기록되어 있다.<sup>16)</sup>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래군이 울주군으로 래속된 시기가 현종 9년이므로, 이때 동래군에서 동래현으로 강등되어 울주군으로 래속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동래군의 강등시기는 현종 9년 대대적인 군현 개편 때 이루어졌다.

동래현으로 강등의 요인은 나말여초시기 정치적 동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동래의 인근 군현인 양주와 울주는 지역의 호족세력인 김인훈과<sup>17)</sup> 박윤웅<sup>18)</sup> 등이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왕건의 편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통일 후 주의 명칭을 유지하였다. 반면 동래군은 후백제 견훤의 군사적인 활동 하에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므로, 인근 군현과 같은 정치적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동래군의 강등과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동래현은 언제 주현으로 다시 승격되었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고려사』 식화지 녹봉조에 인종 때 지방관의 녹봉을 다시 정하였는데, ‘동래현령과 縣尉는 각각 26석 10두와<sup>19)</sup> 20석’을<sup>20)</sup> 지급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종대의 외관록은 문종 30년의 외관록에 비해 군현제도의 변화와 함께 더 많은 외관이 파견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sup>21)</sup> 즉 동래현은 인종대에 현령과 현위의 파견으로 주

15) 東萊縣 … 高麗時改東萊縣(『경상도지리지』, 동래현).

16) 高麗顯宗屬蔚州(『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건치연혁).

17) 이종봉, 「나말여초 양주의 동향과 김인훈」, 『지역과 역사』 13, 2003.

18) 구산우, 「나말여초의 울산지역과 박윤웅-藿所의 기원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연구』 5, 1992.

19) 二十六石十斗 … 江華·耽羅·長湍·海陽·遂安·嘉林·富城·金口·臨陂·進禮·金堤·南海·珍島·綾城·管城·大丘·一善·義城·基陽·順安·延日·東萊·萬頃·牛峯·盈德·金浦等縣令(『고려사』 권79, 식화3 녹봉).

20) 二十石 … 嘉林·富城·臨陂·進禮·金堤·海陽·綾城·耽羅·管城·大丘·一善·江華·義城·順安·東萊·遂安等縣尉, 諸監務(『고려사』 권79, 식화3 녹봉).

21) 최정환, 『고려·조선시대 녹봉제 연구』, 경북대출판부, 1991, 58~60쪽.

현으로 승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래현의 주현화는 지역의 지배세력인 동래정씨의 인물들이 중앙의 관직으로 진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동래정씨는 鄭穆(1040~1105)·鄭沆·鄭敍 3대에 걸쳐 고위 관직에 올랐는데, 예부상서 추밀원사에 오른 정항(1080~1136: 인종 14)은 숙종 옹립으로 1등 공신에 오른 왕국모(王國髦: ?~1095)의 딸과 혼인하였고,<sup>22)</sup> 정항의 아들인 정서(?~?)는 인종의 왕후인 공예태후(1109~1183)의 여동생과 혼인을 함으로써, 인종과 동서 사이가 되었다.<sup>23)</sup> 동래정씨는 11세기 중 후반부터 12세기 중반 이전까지 중앙정계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였지만, 정서가 大寧候 王璟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고 동래로<sup>24)</sup> 유배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동래현이 주현으로 승격된 시점은 아마도 11·1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동래정씨가 개경의 귀족으로 성장하였고, 이로 인해 귀족가문과 혼인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왕은 이를 고려하여 동래현을 배려하였을 것이고, 이때 주현으로 승격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동평현은 앞의 <자료 나>와 조선초기의 지리지를 통해 군현의 이속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자료 다>

A) 東萊縣 … 屬縣一 東平 本大飢縣 景德王改今名 爲東萊郡領縣 顯宗戊午 屬梁州任內 本朝太宗五年乙酉來屬 己丑復屬梁州 今上十年戊申屬還于縣(『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동래현)

B) 屬縣 東平縣在縣南十里 本新羅大飢縣 景德王改今名 爲東萊郡領縣 高麗顯宗屬梁州 本朝太宗五年復來屬, 後復屬梁州 世宗朝復來

22) 김용선, 『정항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 출판부, 2001.

23) 고려 중기 동래정씨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 된다(채상식, 『고려중기의 정치정세와 동래정씨』, 『역사와 세계』 28·29, 2005).

24)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5년 5월.

屬(『동국여지승람』 권23, 경상도 동래현)

위의 <자료 다>는 동평현의 군현 변동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평현은 고려 현종 9년 양주의 속현으로 이속되었고, 태종 5년에 동래현으로 다시 래속되었다가 기축년(태종 9, 1409)에 다시 양주로 이관되었으며,<sup>25)</sup> 또 다시 세종 10년(1428) 동평현은 동래현에 가까우므로, 동래현에 이속시키지고 하니 환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6)</sup> 중요한 것은 고려 중기 이후에 동래현이 주현으로 승격되었을 때 동평현이 이전처럼 동래현으로 이속되었을 가능성이 없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위의 자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동평현은 현종 9년 이후부터는 변동에 대한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다가, 태종 5년에 동래로 이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종 9년부터 태종 5년까지 양주의 속현으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세 동평현은 동래군(현)과 양주(양산군)의 영현과 속현으로 계속 존재하다가, 조선 초·중기에 이르러 동래의 동평면이 되면서 현이 소멸되었을 것이다.

고려전기에 속현이었던 군현은 12세기 예종·인종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주현으로 바뀌었다. 인근의 기장현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감무의 파견으로 주현으로 승격하였다.<sup>27)</sup> 그런데 동평현은 12세기 이후 주현으로 승격하지 못한 요인은 무엇일까? 통일신라 및 고려초기 동평현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군현으로 草溪縣이 주목된다. 초계현은 ‘본래 新羅의 草八兮縣으로, 景德王 때 이름을 八溪로 고치고, 江陽郡의 領縣이 되었다. 高麗 초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현종 9년(1018)에 그대로 합주에 소속시켰다. 明宗 2년(1172)에 監務를 두었다.’고 기록하

25)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기유(7일).

26)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1월 정해(4일).

27) 정용숙, 앞의 논문, 1996. 김기섭, 앞의 논문, 1996.

고 있다.<sup>28)</sup> 초계현은 고려중기 이후 초계정씨로 홍문공도로 유명한 鄭倍儼(?~1051)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배출되었다.<sup>29)</sup> 초계현은 늦었지만, 명종 2년 감무가 파견되어 주현으로 승격하였다. 동평현은 나중에 서술하는 것처럼 동평이씨와 안씨를 본관으로 하는 토성이 존재하였지만, 동래정씨나 초계정씨처럼 유명 인물을 배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동평현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호수는 108, 구수는 342의 규모(전결은 기록 없음)였으므로,<sup>30)</sup> 현세가 아주 작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동평현은 중요 인물이 나타나지 않은 점과 현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속현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그렇다면 동래현과 동평현은 현재의 부산지역 내에서 어느 지역을 공간구역으로 하고 있었을까. 먼저 치소의 위치를 살펴보면, 동래현성은 『고려사』에 ‘현종 12년(1021) 東萊郡城을 수축하였다’는 기록이 있고,<sup>31)</sup> 『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고읍성은 해운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2)</sup> 따라서 고려 때 동래현성은 문헌기록과 발굴성과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수영구 망미동 640, 870번지 일대에 위치하였고,<sup>33)</sup> 나중에 지금의 동래구 복천동 일원으로 옮길 때까지 존재하였다.

반면 동평현성은 『동국여지승람』에 ‘동래현의 남쪽 20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sup>34)</sup> 다른 자료에서도 동평현성을 옮겼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고려와 조선초기에 계속 같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동평현성은 이전의 발굴성과를 고려할 때 현재의 당감동 350번지 일원에 위치하였

28)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합주 초계현.

29) 이종봉, 「초계출신의 유학자, 정배결」, 『고려시대 경남 사람들(내손안의 경남 11)』, 선인, 2019.

30)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동래현.

31) 『고려사』 권82, 병2 성보.

32) 『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고적.

33) 동의대학교 박물관, 『부산 망미동 동래 고읍성』, 2006. 경남문화재연구원, 『동래고읍성지』, 2007.

34) 『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고적.

다.<sup>35)</sup> 그런데 동평현성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석성(周回二百六十四步, 內有泉一池四)이 존재하고 있었는데,<sup>36)</sup>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고적조에는 ‘지금은 무너졌다(今頽圯)’고 기록하고 있으므로,<sup>37)</sup> 즉 중종 25년(1530) 이전에 현의 소멸과 함께 폐성이 진행되었을 수 있다. 이는 동평현이 동평면이 된 시점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한다.<sup>38)</sup>

동평현의 공간 범위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동래군 산천조의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양 자료에서 동래현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즉 동래현의 공간에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황령산, 현의 남쪽 5리에 있다’고 기록하고<sup>39)</sup> 있는 반면에, 동평현의 공간에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동평현 몇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釜山・吾海也項 등이 그러하다.<sup>40)</sup> 부산은 동평현에 있으며, 산이 마치 가마솥 모양과 같아서 이름이 붙여졌다. 그 아래가 바로 부산이고, 항거왜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해야항은 동평현으로부터 43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의 사하구의 감천동과 괴정동의 일원이다. 따라서 동평현의 동쪽 경계는 황령산 서편 지역임을 유추할 수 있고, 지금의 화지산의 동남쪽도 동래정씨의 시조묘가 있는 지역이므로, 이서 쪽이 동평현의 공간적 범주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 역원조에 沙川院이 있는데, 동평현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1)</sup> 사천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35) 부산박물관, 『당감동성지』 I, 1995. 부산박물관, 『당감동성지』 II, 1998.

36)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동래현.

37) 『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고적.

38) 부산박물관, 위의 책, 1995, 103쪽에 의하면 조선초기의 대표적 유물인 분청사기가 많이 출토되었지만, 백자 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음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9) 『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산천.

40) 『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산천.

41) 『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역원.

<자료 라>

A)西北踞梁山郡境沙川十六里(『경상도지리지』, 동평현 四方)

B)任內東平縣沙川里院(『경상도속찬지리지』, 동래현 院宇)

위의 <자료 라>에 의하면 沙川에서 양산군과의 경계는 16리이고, 사천에는 사천리원이 존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사천리원의 위치는 현재 사상구 모라동 쪽으로 유추하고 있는데, 조선후기 『동래부지(1740)』를 편찬할 무렵에는 소멸되었다.<sup>42)</sup> 사천원은 동평현이 양주의 속현이었을 때 兩 지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교통시설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양주·양산군 남쪽에는 동평현의 사천원과 연결되는 또 다른 원이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자료 마>

A)左耳田里東院(『경상도속찬지리지』, 양산군 원우)

B)東院在郡南二十二里(『동국여지승람』 권22, 양산군 역원)

위의 <자료 마>에 의하면 조선초기 양산군에는 남쪽으로 좌이전리에 동원이 설치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좌이전리 동원은 현재 부산시 북구 금곡동 866번지 일대로,<sup>43)</sup> 11~14세기의 청자와 기와, 15세기 전반~16세기 말기의 분청사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sup>44)</sup> 남쪽의 사천리원과 연결된 통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동평현과 양산군의 공간적 경계는 사천원과 동원 사이일 것으로 유추된다. 사천원에서 양산군과의 경계가 16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양

42) 『동래부지』, 역원 ‘沙川院 在東平縣今無’.

43) 경남문화재연구원·디앤씨홀딩스, 『부산 금곡동 동원지』, 2006.

44) 경남문화재연구원·디앤씨홀딩스, 위의 책, 122쪽.

군현의 공간적 경계는 화명동을 가로지르는 대천천 부근일 것으로 유추된다. 대천천은 화명동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물이 낙동강으로 흐르는데, 이를 동평현의 북쪽 경계 공간으로 삼았을 것이다. 동평현의 남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지역으로 포함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동평현의 공간 범주는 현재의 진구, 동구, 영도구, 서구, 사상구, 사상구, 북구 동일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은 공간적 범위를 가진 동평현은 어떠한 지배세력과 사회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먼저 동평현의 지배세력은 조선초기 다른 군현처럼 지리지에 토성의 존재유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동평현의 토성은 조선초기 지리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자료 바>

A) 東萊縣 … 屬縣一 … 東平姓一 李(『세종실록』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동래현)

B) 東萊縣 … 東平安, 李(『동국여지승람』권23, 동래현 성씨)

위의 <자료 바>에 의하면 동평현의 토성은 양 지리지의 기록에 성씨의 차이가 있지만, 동평李씨는 명확하게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평이씨는 조선초기 工曹典書 李和尚의 妻 李氏에게 발급한 告身에<sup>45)</sup> ‘吏曹 牒 故嘉善大夫工曹典書李和尚妻李氏 年三十七 籍東平 父前奉善大夫司宰副令 崇祚 外祖 … 洪武三十一年十二月初六日 牒’이라는 기록이 매우 주목된다. 문서는 태조 7년(홍무 31, 1398)에 발급되었는데, 이화상의 처가 동평이씨이다. 이화상은<sup>46)</sup> 태조 7년에 공조전서의 직에 있었

45) 노명호 외 7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1)』, 서울대 출판부, 2000, 103~105쪽.

46) 이화상은 요동의 토인으로父인 李豆蘭과 함께 고려 말에 귀화한 인물이지만(『태조실록』권1, 충서), 태조 7년 이후 어느 시점에 요동으로 다시 도망가기도 하였다(『태종실록』권3, 태종 2년 4월 을묘(3일)).

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sup>47)</sup> 이후 공조전서와 같이 다른 고위 관직을 역임한 기록이 없어 다소 아쉽다. 따라서 동평이씨는 조선초기에 존재하였고, 관인증과 혼인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토성으로 존재하였던 성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평이씨는 조선전기 이후에 다른 문헌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동래이씨는 『동국여지승람』 동래현, 성씨조에 ‘李(來姓)’가 기록되어 있고,<sup>48)</sup> 李英秀가 중종 35년(1540) 음양과 3등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고,<sup>49)</sup> 그리고 통계청 인구조사(2000)에도 807명이 조사되어 있다.<sup>50)</sup> 래성인 동래이씨는 언제 어디에서 왔을까? 래성은 『세종실록』 지리지 경산현조에 유래를 밝힌 경우로 ‘래성인 脣는 풍각에서 왔다’고 기록한 사례도 있고,<sup>51)</sup> 동래현의 이씨처럼 유래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씨를 본관으로 동래현 인근의 군현은 동평현과 양산군<sup>52)</sup> · 울산군<sup>53)</sup> · 기장현<sup>54)</sup>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의 이씨는 여말선초시기에 동래현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군현 중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울산군은 가능성이 적고, 동평현 · 양산군 · 기장현 등은 근접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동래현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근 지역의 유력본관의 하나인 동래정씨가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역의 토성이 본관을 동래이씨로 바꾸었을 수도 있다.<sup>55)</sup> 다만 동평이씨는 고려시기 동래현의 동래정씨처럼 유력성씨는 아니지만, 동평현의 토성

47)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1월 7일(을묘).

48)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동래현 ; 『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성씨.

49) 『가정19년경자4월식년방목』(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50) 『통계청』홈페이지, 인구조사.

51)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산현.

52) 土姓:朴·金·李·鄭·韓·房·曹(『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양산군).

53) 土姓:朴·金·李·睦·全·吳·尹·文·林(『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울산군).

54) 土姓:李·金·鄭(『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기장현).

55)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 출판부, 2003, 272~273쪽.

세력으로 존재하였고, 현이 낙동강과 근접해 있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동평이씨는 낙동강을 기반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이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동평안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어 아쉽다.

동평현의 공간적 범주 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덕천동 유적이다. 덕천동 유적에서는 전근대시기의 목관묘를 비롯한 다수의 민묘가 발굴 조사되었는데,<sup>56)</sup> 그 중에서 고려시기의 목관묘 16기가 주목된다.<sup>57)</sup> 고려시기 목관묘에서는 다른 지역의 목관묘와 비슷하게 청자, 청동제 합, 수저, 동곳, 반지, 거울, 동전, 철제가위, 관정, 유리구슬 등의 여러 유물이 출토되었다.<sup>58)</sup> 덕천동 1호분에서는 청자와 함께 복숭을 비롯한 중국 여러 국가의 동전 등이 함께 출토되었고, 특히 유적 16호분에서 출토된 상감기법의 ‘국화문 마상배’를 비롯한 고급 청자가 주목된다. 이러한 고급 청자는 인근 지역의 가마터에서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고, 전라도 강진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유사성을 많이 가진다. 덕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고급 청자는 김해 덕산리 사지와 부산 용당동 유적지 출토의 고급청자를 고려할 때 원거리 지역인 강진과 교류를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덕천동 고분군의 피장자가 고급의 청자와 宋錢을 비롯한 중국 錢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고려 때 해상과 강은 근·원거리 상업활동의 중요한 길목이었는데,<sup>59)</sup> 덕천동의 반대쪽 상류인 김해의 삼차수는

56) 부산박물관, 『부산덕천동고분군』, 1983. 동아대학교 박물관, 『구포덕천동유적』, 2006.

57) 동아대학교 박물관, 위의 책, 2006, 48~96쪽, 255쪽에서는 고려시대 목관묘를 16라고 서술하고 있고, 복천박물관, 『고고학으로 본 부산의 역사』, 2008, 132쪽에는 고려시대 분묘를 18기라고 서술하고 있다.

58) 동아대학교 박물관, 위의 책, 2006, 257쪽.

59) 홍희유, 『조선상업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84~87쪽.

낙동강 하류에서 선상들의 거점이었고, 都要渚의 민들은 낙동강을 통한 상업활동으로 부를 축적하였다.<sup>60)</sup> 따라서 덕천동 고분군의 피장자들도 해상과 강을 통한 상업활동, 즉 낙동강 하류 통해 상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부의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역을 전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sup>61)</sup>

덕천동 고분군의 고급 청자는 뒤에서 서술하고 있는 만덕동 사지의 출토품과 유사성이 많다고 파악하고 있다.<sup>62)</sup> 이러한 고급 청자는 만덕동 사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김해 덕산리 사지의 마상배와<sup>63)</sup> 부산 용당동 유적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이들 사지의 고급 청자는 덕천동 고분군의 경우처럼 강진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유추하고 있다.<sup>64)</sup> 따라서 덕천동 고분군의 피장자는 낙동강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만덕동 사지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선악사 등의 주요 단월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동평현에는 후술하는 만덕동 사지(기비사·송선사 등)의 사찰과 함께 문헌기록을 통해 ‘仙岳寺’가<sup>65)</sup> 존재하였는데,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 <자료 사>

高麗國東平縣仙岳寺鑄造記 汗也 立國已來佛坐處小鐘 新鑄 棟梁戶長得意周伯等 施主諸長吏百姓共合鑄銅鑄鐘 願旦那家安泰百口豐福隣<sup>66)</sup> 匠□□□ 咸雍二年七月日謹記 寺主智均僧(?)鑄匠 棟梁僧鏡

60) 『동국여지승람』 권32, 김해부 산천조.

61) 이종봉,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항도부산』 20, 2004, 185~186쪽.

62) 동아대학교 박물관, 위의 책, 2006, 258쪽.

63)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 덕산리사지』, 2006, 70쪽.

64) 강정미, 앞의 논문, 9~11쪽.

65) 坪井良平, 「朝鮮鐘の補遺資料」, 『朝鮮學報』16, 1960, 90~91쪽. 황수영, 「선악사중(在日今亡)」, 『한국금석유문(3판)』, 1985, 301~302쪽. 엄영하, 「舊仙岳寺鐘」, 『韓國의鐘』, 서울대 출판부, 1998, 198~199쪽.

玠(『한국금석유문』, 선악사종(在日今亡))

위의 자료에 의하면 동평현 관내에는 선악사란 또 다른 사찰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동평현 영역 내에 위치하였던 선악사에 대해서는 부산의 역사 서술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악사종은 함옹 2년(문종 20, 1066) 7월에 만들었는데, 동량으로 戶長 得意周伯과 시주는 諸長吏百姓 등이 함께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선악사종은 소재를 알 수 없지만, 일본의 『晴翁漫筆』에<sup>67)</sup> 필사되어 있는 것을 수록하였다.<sup>68)</sup> 종명에서 주목되는 점은 문종 20년 종을 만들 때 동평현의 향리층인 호장과 諸長吏 등이 참여하였던 점과 향리층의 성씨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려의 향리층은 성종 2년 직을 개정하고,<sup>69)</sup> 현종 9년에도 향리 직제와<sup>70)</sup> 함께 각 직의 정원을 정했다.<sup>71)</sup>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동평현에도 개편된 향리직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동평현은 속현지역인데, 호장을 중심으로 하는 직제가 존재하였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동평현은 호장과 제장리 등의 존재를 통해 향리의 직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은 지배세력으로 지역의 중요 현안들을 주도해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동평현의 향리층은 종을 만드는 일을 주도하였지만, 성씨의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동평현의 향리층이 문종 20년에도 성씨를 가

66) 隣은 판독자에 따라 隣 혹은 □으로 판독하였지만, 필자는 坪井良平和 염영하의 판독에 따라 隣으로 판독하고자 한다.

67) 幕末 大阪의 극작가로 유명하였던 曉鐘成(본명 木村明啓)의 수필이다(坪井良平, 『朝鮮鐘の補遺資料』, 『조선학보』 16, 1960, 90쪽).

68) 坪井良平, 위의 논문, 1960, 90~91쪽에서 종의 명문은 『晴翁漫筆』에 수록된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였다.

69) 『고려사』 권75, 선거3 전주 향직 성종 2년.

70) 『고려사』 권75, 선거3 전주 향직 현종 9년.

71) 구산우, 『고려향촌지배체제연구』, 해안, 2003, 482~483쪽 참조.

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성씨를 누락시킨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비슷한 시기인 고려국 홍려부(울주)에서<sup>72)</sup> 현종 10년(1019)년 만들어진 臨江寺鐘 棟梁으로 참여한 戶長 陪戎校尉 金瑤畝의 사례와<sup>73)</sup> 시기가 늦은 고종 3년(1216) 안성현<sup>74)</sup> 鳳安寺鐘을 만들 때 시주한 戶長 李光□의 사례에서는 성씨를 기록하고 있다.<sup>75)</sup>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평이씨는 동평현의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 초기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평현의 향리층은 문종 20년에 성씨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씨가 토성으로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성씨의 누락으로 유추된다.

그런데 선악사의 사명은 『동국여지승람』 등을 비롯한 지역의 지리지에 여타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사명을 통해 유추한다면 고려 때 동평현성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선암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유추할 수 있지만,<sup>76)</sup> 고려 때는 견강사로 파악되고 있다. 선악사와 선암사는 사명만 유사할 뿐 전혀 다른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평현 관내에는 만덕동사지(기비사, 송선사)와 함께 선악사, 견강사(선암사) 등이 존재하였고, 이들 사찰이 민의 구복처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다만 동평현의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모습을 고려한다면 만덕동 사지의 사찰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닌가 생각된다.

72) 土姓이 9이니, 朴·金·李·陸·全·吳·尹·文·林이다(『세종실록』 지리지, 권150 경상도 경주부 울산군).

73) 황수영, 「임강사종(在日今亡)」, 『한국금석유문(3판)』, 일지사, 1985, 296쪽.

74) 土姓이 6이니, 李·金·趙·薛·張·敬이다(『세종실록』 지리지, 권148, 경기 수원도호부 안성군).

75) 황수영, 「봉안사종」, 앞의 책, 1985, 308~309쪽.

76) 선암사는 조선총독부, 『조선사찰사료(1911)』에 수록된 중수기에 의하면 애장왕 4년(803) 견강사로 창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조선전기 성종 14년(1483)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우면서 명칭이 개칭되었다고 한다.

### Ⅲ. “만덕동 사지”의 寺名과 위상

#### 1. 사역과 사명

본 절에서는 동평현 관내에 있었던 만덕동 사지의 사역과 절의 명칭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지는 앞의 서론에서 서술한 것처럼 3차의 발굴을 통해 금당을 중심으로 여러 유구를 확인하였다. 만덕동 사지의 사역은 본 글을 작성하기 위해 몇 차례 답사와 유물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역을 유추하고자 한다.

첫째,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장생표와 당간지주의 위치이다. 먼저 장생표는 1978년에 발견되어, 만덕 1동 543번지 일대에 있었다고 전하지만, 현재는 위치와 존재도 알 수 없다. 만덕동 사지의 장생표는 고려 때 양산 통도사가 세운 장생표의 위치를 고려하면 금당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따라서 만덕동 사지의 사역은 장생표의 위치를 통해 유추한다면 통도사와 같은 넓은 사역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만덕동 사지 당간지주(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14호)<sup>77)</sup>를 고려하기 유물로 추정되고, 석주 중에 하나만 남아있다. 당간지주는 높이가 3.5m나 되며 가로 40cm, 세로 60cm로 비교적 큰 규모이다. 돌을 다듬은 치석(治石)이 매우 훌륭하며, 당간지주의 바깥쪽에는 세로로 도드라진 선을 중앙에 돌을새김을 하고 있다. 당간지주는 사지의 사역을 추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지적도의 도면을 살펴보면 금당과 다소 떨어진 위치에 있고, 현재는 이전의 사역을 옛 만덕로의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역의 남쪽 범주를 유추할 수 있다. 금당지의 서쪽과 동쪽 주변은 발굴을 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유물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영역이 사역에 포함

7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78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금당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은 강당지와 함께 산지 등에 있는 석축을 고려하면 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만덕동 사지의 사역은 통도사와 같이 국왕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찰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상당히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둘째, ‘祇毗寺’란 명문의 의미를 통해 사명을 유추하여 보자.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기비사명 기와는 1차 발굴에서 기비사와 祇毗명이 출토되었고, 2차 발굴에서 기비사명이 출토되었고, 3차 발굴에서는 기비사명과 松善寺명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출토 명문을 근거로 추정해는 이전에 만덕동 사지의 사명을 ‘祇毗寺’일 것이라고 유추하였다.<sup>78)</sup> 본 연구자도 그러한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조하며, 다른 자료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최근 부산·경남지역의 폐사지에서 계속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지에서 사명으로 유추되는 명문 기와가 출토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가 같다.

<표 1> 고려시대 경남·부산지역 사지의 발굴유적과  
동국여지승람의 불우조 비교<sup>79)</sup>

| 군현명   | 발굴유적             | 현소재지     | 동국여지승람 불우조                                                          |
|-------|------------------|----------|---------------------------------------------------------------------|
| 김해도호부 | 덕산리사지            | 김해시      | 감로사(신어산), 금강사(북쪽), 귀암사, 십전사, 청량사, 이제사(신어산), 운점사(운점산), 진국사, 명월사(명월산) |
| 창원도호부 | 봉림사지<br>(鳳林寺 명문) | 창원시 봉림동  | 鳳林寺, 광산사, 만월사                                                       |
|       | 삼정자동사지           | 창원시 삼정자동 |                                                                     |

78) 최정혜, 앞의 논문, 9~12쪽.

79) 배상현, 「고고학적 조사 성과로 본 고려시대 경남지역의 불교 사원-유적의 현황과 공간으로의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38, 2014, 409쪽의 <표 2> 고려시대 경남지역(군현)과 사원유적 현황을 일부 참고하여 재작성 하였다.

|                     |                       |         |                                                                                                                      |
|---------------------|-----------------------|---------|----------------------------------------------------------------------------------------------------------------------|
| 함안군                 | 강명리사지<br>(義谷寺명문)      | 함안군 함안면 | 주리사, 미산사(여항산),<br>사자사, 청송사(용화산),<br>아견사(풍탄)                                                                          |
|                     | 대산리사지                 | 함안군 함안면 |                                                                                                                      |
| 창녕현                 | 말흘리사지                 | 창녕군 창녕읍 | 관룡사, 자련사, 승지사<br>(화왕산), 연화사(비슬산)                                                                                     |
| 진주목                 | 단속사지                  | 산청군 단성면 | 단속사, 불일암, 천불암,<br>안양사, 목계사, 영신사,<br>청곡사, 법륜사, 응석사,<br>향적사, 와룡사(와룡산),<br>오대사, 우방사, 지거사,<br>화엄사, 신흥사, 쌍계사,<br>용암사(반성현) |
| 진주(?)               | 묘엄사지<br>(妙嚴寺 명문)      | 진주시 수곡면 |                                                                                                                      |
| 산음현                 | 지곡사지<br>(智谷寺 명문)      | 산청군 산청읍 | 智谷寺, 왕대암                                                                                                             |
| 합천군,<br>초계군,<br>삼가현 | 靈巖寺址(?)               | 합천군 가회면 | 용계사, 안계사, 해인사,<br>청량사, 월광사, 내원사,<br>봉서사, 미타사, 봉두사,<br>금곡사, 감악사, 몽계사                                                  |
|                     | 죽죽리사지                 | 합천군 용주면 |                                                                                                                      |
|                     | 백암리사지                 | 합천군 대양면 |                                                                                                                      |
|                     | 대지리사지                 | 합천군 대병면 |                                                                                                                      |
| 곤양군                 | 본촌리사지<br>(資福寺 명문)     | 사천시 곤명면 | 서봉사, 영악사, 영월사                                                                                                        |
| 동래 ·<br>동평현         | 만덕동사지<br>(祇毗寺 명문)     | 부산시 만덕동 | 범어사, 효의사                                                                                                             |
|                     | 송선사지<br>(松善寺 명문)      | 부산시 만덕동 |                                                                                                                      |
|                     | 용당동사지(○守寺,<br>月天寺 명문) | 부산시 용당동 |                                                                                                                      |

위의 <표 1>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동국여지승람』, 각 군현의 불우 조에는 여러 사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위의 <표 1>과 같이 발굴조사에서 나온 봉림사, 지곡사 등의 기와 명문과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사명이 일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발

굴 조사된 사명의 기와 명문이 『동국여지승람』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동국여지승람』, 군현의 불우 조의 사명은 각 군현의 모든 사찰 명칭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사명이 기록될 무렵에 폐사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만덕동 사지’의 사명에 대한 혼란이 일어난 이유는 조선초기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과 조선후기의 읍지인 『동래부지』,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동래군지』 등의 자료에서도 이곳에 존재하였던 사명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국여지승람』 동래현에는 범어사와 효의사만 기록되어 있고, 『동래부지』에는 범어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명이 기록되어 있다.<sup>80)</sup>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위의 <표 1>과 같이 발굴조사에서 나온 기와 명문과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사명인 봉림사, 지곡사 등의 경우처럼 일치하는 사례가 있다. 반면 『동국여지승람』에 사명의 기록은 없지만, 위의 <표 1>의 경우처럼 경남 진주의 묘엄사, 사천 본천리, 그리고 부산 만덕동 사지와 용당동 사지처럼 명문이 조사된 경우가 다수 있고, 최근 함안 강명리 사지에서도 명문이 조사된 사례도 있다.<sup>81)</sup> 이러한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발굴 조사된 명문과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의 사명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기비사’의 명문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사명을 유추한다면 ‘기비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면 기비사의 사명은 문헌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祇毗寺의 사명은 ‘금산사향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sup>82)</sup> 다음의

80) 『동래부지』의 사명은 범어사, 효의사(今廢), 완월암, 은선암, 청련암, 남암, 대성암, 안령암, 금강암, 원효암, 사조암, 국청사, 해월사, 미륵암, 운수사, 서운암(이상 금정산), 선암(금용산), 인지암(장산, 今廢), 백양사(금용산 今廢), 마하사(황령산), 화지사(화지산) 등이 기록되어 있다.

81) 『경남일보』 2021.05.11.

82) 최정혜, 앞의 논문, 9~11쪽.

자료가 주목된다.

<자료 아>

大定十八年戊戌五月日造 金山寺大殿彌勒前 青銅香完壹具 都重三十斤入銀八兩 棟梁祇毗寺住持三重大師惠踞 金山寺大師仁美 京主人郎將金令候妻崔氏伊次加女納絲 殿前尙乘府內承旨同正康信 鑄成高正(『한국금석유문』, 금산사향안)

대정 18년(명종 8, 1178) 금산사<sup>83)</sup> 미륵대전에 향완 1구를 만들었는데, 기비사주지 삼중대사<sup>84)</sup> 혜거, 금산사 대사 인미, 경주인 낭장 김령후의 처 최씨 등이 발원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향완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비사의 주지인 혜거와 경주인 낭장 김령후의 처 최씨가 발원자로 참여하였던 점이다. 혜거는 12세기 후반 삼중대사의 승계를 가지고 기비사에 주지로 있는 인물인데, 어떻게 전라도 금구현에 위치한 금산사 향완을 만들 때 발원자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향완에 기록된 기비사를 전라도 금구현 금산사 인근에 위치한 사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주인 낭장 김령후의 처 최씨가 발원자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근에 위치한 사찰이 아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비사의 혜거는 12세기 후반의 불교적 입장을 대표하였다면, 경주인 낭장 김령후의 처 최

83) 금산사는 현재의 김제시에 있는 사찰로 추정되며, 고려 때 금구현에 위치하였다. 금구현은 무신란 직후 이의방의 외항이라 하여 속현에서 현령관으로 승격되었다.

84) 삼중대사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교종과 선종의 승려에게 공통으로 수여된 승계 또는 법계의 하나로, 선종의 경우 重大師보다 높고, 禪師보다 낮은 階位이며, 교종의 경우 중대사보다 높고 首座보다 낮은 계위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광종 때 승려들의 과거시험인 승과제도가 시행되며 승려들의 지위가 階序化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성종대에 이르러 승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다. 승과는 각 종파에서 선발하는 예비 시험인 宗選과 본 시험인 大選으로 구분되는데, 대선은 敎宗選과 禪宗選을 각각 시행하였다. 성종대에는 삼중대사 이후의 승계가 마련되었다. 삼중대사 위의 승계는 선종의 경우 선사를 거쳐 大禪師에 이르게 되며, 교종의 경우는 수좌를 거쳐 僧統에 이르게 된다. 이 삼중대사 이상은 王師나 國師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씨는 경주인이라는 신분을<sup>85)</sup> 고려하면 향완을 발원하기 위해 재정적 후원자로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12세기 후반의 혜거는 다른 문헌 자료에 기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위상을 가진 승려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삼중대광이란 승계를 고려하면 승과에 급제하였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혜거는 당시 불교계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졌던 인물로 유추되고, 그에 따라 기비사도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향완에 기록된 기비사의 사명은 만덕동 사지에서 조사된 기와명문을 제외하고는 혜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자료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혜거가 주석하였던 기비사는 만덕동 사지에서 기와명문인 기비사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양 자료에 근거하여 동일 사찰로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178년은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한 후 집권을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혜거가 삼중대사 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덕동 사지에서도 뒤에서 서술하는 고급 청자와 잡상을 사용한 시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산사 향완에 기록된 기비사와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의 기비사는 동일한 사찰임을 알 수 있고, 12세기 후반 원거리인 금산사 향완의 구성에 참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찰의 대외적 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만덕동 사지의 기비사의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 잘 알려진 것처럼 한자의 뜻은 다르지만, 기비사의 其比는 『동국여지승람』, 동래군 산천조에 ‘其比峴의 서쪽 8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sup>86)</sup> 기비현은 동래현 산천조에 기록된 유일한 고개이다. 인근 군현인

85) 이광린, 「경주인 연구」, 『인문과학』 7, 1962. 김동철, 「상업과 화폐」, 『신편 한국사』 14, 1993, 447쪽.

86) 『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산천.

기장현과 양산군의 경우 고개(峴)들이 많은데, 『동국여지승람』 양산군과 기장현 산천조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비현은 조선초기 동래현의 대표적 고개였고, 동래에서 구포(낙동강)지역으로 왕래할 때 반드시 지나다녀야 할 만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으로 유추된다.

기비현의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초기 이전에도 널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재 만덕동 사지의 사명으로 불리는 ‘만덕사’와 관련을 갖는 만덕고개는 ‘믄등고개’ 즉, 높은 등성이 고개, 큰 등성이에 있는 고개란 의미에서 명명된 지명이다.<sup>87)</sup> 기비현과 만덕고개는 기비현이 먼저 사용되었고, 만덕고개가 뒤에 명명되면서 『동래부지(1740)』에 만덕리란 지명이 생겨났다. 그 후 기비현의 명칭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지리지(1910)』부터 ‘만덕령’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기비현의 명칭은 『동래군지(1937)』에 다시 기록되었는데, 이는 『동래부지』의 기록을 그대로 전재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sup>88)</sup> 따라서 만덕동 사지의 사명은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명칭(기비현)과 역사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고, 기비현이 기비사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덕동 사지는 『고려사』에 기록된 만덕사가 아니었음을 석기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윤충의 유배지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 다음의 자료들이 주목된다.

#### <자료 자>

A) 辛卯 髡永陵孽子釋器 置萬德寺(『고려사』권38, 공민왕 즉위년

87) 이근열, 앞의 논문, 217~224쪽. 반면 만덕사의 유래를 다른 의미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부산지명총람』 3권, 1997, 151쪽).

88) 이근열, 앞의 논문, 210~212쪽.

12월)

B)乙丑 王聞前護軍林仲甫欲奉永陵孽子釋器圖不軌 繫巡軍 辭連前政丞孫守卿等十餘人(『고려사』권39, 공민왕 5년 6월)

C)己巳 斬守卿等 貶其黨贊成事康允忠爲東萊縣令 杖漢陽尹洪仲元等 放釋器于外(『고려사』권39, 공민왕 5년 6월)

D)乙亥 停至正年號 敎曰 “洪惟我太祖創業 列聖相承 威能繼述 衣冠禮樂 燦然可觀 … 釋器非止庶孽 又係私婢所出 而倚望謀逆 若孫守卿等 亦置典刑 自今伊始 勵精圖治 修明法令 整頓紀綱 復我祖宗之法 期與一國更始 敷實德於民 續大命于天 二罪以下一切除之 其輒 頑 守卿等註誤連累者 亦從原免(『고려사』권39, 공민왕 5년 6월)

E)戊戌 平壤尹田祿生 斬稱永陵孽子釋器者 傳首于京 釋器事覺未著 徒黨未集而遽殺之 人皆疑之(『고려사』권44, 공민왕 22년 12월)

F)癸卯 大赦敎曰 “釋器非止庶孽 又係丹陽大君家婢所出 往者 孫守卿等 倚以謀變 既伏厥辜 群臣皆謂 禍本宜除 予不忍即置于刑 命李安鄭寶等 送至濟州水精寺安置 安等回言 登船之際 自溺而死 已嘗布告中外 今西北面都巡問使田祿生 密認釋器在其部內 誘集兇徒 潛謀不軌 與西海道都巡問使金庚 卽往捕獲 傳首至京 予初聞之 疑其不眞 逮問釋器外祖林信 審知不死明甚 非予失於保全 乃其自取顛覆”(『고려사』권44, 공민왕 22년 12월)

위의 <자료 자>는 공민왕 즉위 전후 시기와 말년에 있었던 정치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공민왕은 충혜왕과 같이 충숙왕의 아들이고,<sup>89)</sup> 충혜왕의 아들은 충목왕과 충정왕, 그리고 석기가<sup>90)</sup> 있었다. 공민왕은<sup>91)</sup> 원에 의해 충정왕 다음의 고려 왕으로 책봉되었는데,<sup>92)</sup>

89) 『고려사』권89, 后妃 명덕태후 홍씨.

90) 銀川翁主林氏 商人信之女 丹陽大君之婢也 賣沙器爲業 王見而幸之有寵 三年 王將納和妃 林氏妬之 乃封爲銀川翁主 以慰其意 時稱沙器翁主 … 王好熱藥 諸妃嬪皆不能當御 唯翁主得幸 生釋器 開福宴 奪市人帛爲幣 王被執如元 高龍普等封內帑 翁主泣曰 “王只著禮服 不服重裘 今寒甚 願獻王裘” 龍普許之 龍普又放翁主等宮人百二十六人(『고려사』권89, 은천옹주 임씨).

고려의 개경에<sup>93)</sup> 도착하기 전에 위의 자료 <자 A>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2월 신묘(16)일에 석기를 만덕사로 유배시켰고, 그 후 임인(27)일에 왕의 즉위식을 가졌다.<sup>94)</sup> 석기를 만덕사에 안치시킨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석기의 입장에서는 충목왕과 충정왕 다음으로 자신이 왕위계승권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석기의 측근들도 그런 입장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은 원에 머물고 있던 공민왕을 고려왕으로 즉위시키면서, 석기의 세력들이 준동하기 전에 먼저 석기를 만덕사에 안치시켰다. 이후 석기와 그의 세력은 위의 자료 <자 B와 C>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공민왕 5년 역모를 도모하였다는 이유로 석기가 다시 외방(제주도)에 축출되었고,<sup>95)</sup> 중심 인물인 손수경도 참수되었으며, 그리고 찬성사 강윤충은 동래현의 현령으로 좌천되었다. 이후 공민왕은 부원세력과 왕권에 도전하는 석기의 세력 등을 축출한 것을 기반으로 교서를 통해 ‘一國更始’의 정치를 하겠다고 표방하였다.<sup>96)</sup>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석기의 세력(손수경 당여)인 찬성사 강윤충을 동래현의 수령으로 좌천시킨 것이다. 만약 공민왕 즉위년에 석기를 동평현의 ‘만덕동 사지(만덕사)’로 유배시켰다면, 그의 세력인 강윤충을 인근인 동래현의 수령으로 파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 후 강윤충

91) 공민왕 즉위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 된다(민현구, 『고려 공민왕의 즉위과정』,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 1981. 김당택, 『원간섭하의 고려정치사』, 일조각, 1998.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 연구』, 해안, 2005. 신은제, 『공민왕 즉위초 정국의 동향과 전민변정』, 『한국중세사연구』 29, 2010).

92) 壬午 元以江陵大君祺爲國王, 遣斷事官完者不花, 封諸倉庫宮室, 收國璽以歸, 王遜于江華(『고려사』 권37, 忠定王 3년 10월).

93) 庚子 王及公主 至自元 帝 遣失禿兒太子 及直省舍人牙忽 護行(『고려사』 권38, 恭愍王 卽位年 12월 경인).

94) 壬寅 謁景靈殿 卽位于康安殿(『고려사』 권38, 恭愍王 卽位年 12월 임인).

95) 安置釋器于濟州, 令李安 鄭寶等押送. 至海中, 擠之於水, 釋器不死亡匿(『고려사』 권 91, 宗室 석기).

96) 『고려사』 권39, 恭愍王 5년 6월 을해.

은 공민왕 8년 前代言 洪開道과 上將軍 孫巨源 등과 함께 처형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였다.<sup>97)</sup> 공민왕은 석기의 세력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졌고, 그들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석기가 윤패된 곳은 강윤충이 동래현의 수령으로 파견된 점을 고려할 때 만덕동 사지에 있었던 사찰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98)</sup> 결국 석기는 위의 자료 <자 E와 F>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민왕 22년 12월에 살해되었다. 이는 동년 7월 牟尼奴를 禰로 개명하고, 강릉부원대군으로 책봉한 것과<sup>99)</sup>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공민왕은 우왕의 즉위에 방해될 수 있는 석기를 제거하고, 우의 왕위계승을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만덕동 사지의 사역은 당간지주와 금당의 위치, 주변지역의 지표 조사를 고려할 때 매우 광범한 지역을 범위로 하였고, 사명은 명문기와와 자료를 고려할 때 ‘기비사’로 비정된다고 하겠다.

## 2. 출토 유물을 통해 본 위상

만덕동 사지는 지금까지 3차의 발굴을 통해 여러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와 명문과 함께 고급 청자, 그리고 잡상과 鷗尾 등이다. 이런 유물들은 만덕동 사지의 위상을 규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첫째는 만덕동 사지에서 발굴 조사된 금당의 규모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만덕동 사지의 금당지의 규모는 길이 24.9m, 너비 20.4m이다.<sup>100)</sup> 고려전기 선종 5대 산문의 하나인 산청 지

97) 『고려사』 권39, 恭愍王 8년 12월 갑술.

98) 석기가 윤패된 곳은 만덕동 사지의 사찰이 아니었음을 살핀 연구는 다음의 논문이 참 고된다(최정혜, 앞의 논문, 6~9쪽).

99) 『고려사』 권44, 恭愍王 22년 7월 을사.

100) 부산박물관, 앞의 책, 18~23쪽.

곡사지는 금당지의 규모(길이 10.5m, 너비 7.7m)의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지곡사지에는 진명(912~964)과 慧月(10~11세기) 등의 고승이 주석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고려전기 대표적 고승들이 주석하였던 사찰인 산청 지곡사의 금당의 넓이와 고려시기 다른 사찰의 사지 넓이를 고려하면<sup>101)</sup> 만덕동 사지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덕동 사지가 이 정도의 금당지의 규모를 가졌다는 것은 사찰의 대외적인 위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는 만덕동 사지에서 금당과 함께 주목되는 점은 치미의 크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치미는 황룡사의 치미가 규모(182cm)나 예술성에서 가장 대표적이다. 치미가 크다는 것은 치미를 올린 건물의 규모도 컸음을 의미한다.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치미는<sup>102)</sup> 황룡사의 크기보다 작지만 그에 버금간다. 치미의 규모를 고려할 때 만덕동 사지의 금당도 웅장하였음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만덕동 사지의 치미는 금당의 규모와 함께 이를 지붕 위에 올릴 수 있는 위상을 갖추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는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청자는 1차 발굴에서 규석 받침을 사용한 고급 청자가 조사되었고,<sup>103)</sup> 2차 발굴에서는 팔각점시의 청자와 함께 분청사기 등이 조사되었으며,<sup>104)</sup> 그리고 3차 발굴에서도 많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완형의 해무리굽완과 흑백상감의 대접 등이 조사되었다.<sup>105)</sup> 이러한 고급 청자는 만덕동 사지 외에도

101) 양은경, 「만덕사지 금당과 담은 어디에?-가람배치를 찾아서-」, 『만덕동 사지와 고려시대 불교문화』, 2021, 44쪽 <표 1> 참조.

102) 부산박물관, 『부산만덕사지』, 1993, 51~52쪽에 의하면 1차 발굴 때 금당지의 모서리에서 취미 3편이 조사되었다고 하였고, 부산박물관, 『부산만덕사지』 II, 1998, 2차 발굴 때에도 길이 98cm, 높이 49~51.5cm, 두께 2.0~2.6cm의 조사되었다고 하였다.

103) 부산박물관, 앞의 책, 1993, 63~64쪽.

104) 부산박물관, 앞의 책, 1998, 30~31쪽.

105) 부산박물관, 앞의 책, 2007, 85~102쪽.

앞에서 언급한 부산시 용호동 유적에서도<sup>106)</sup> 규석 받침을 사용한 청자 접시가 출토되었다.<sup>107)</sup> 청자의 유형을 통해 보면, 만덕동 사지의 청자 압출당초문대접 1점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의 출토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완은 만덕동 사지와 용당동 유적의 출토품과 강진 용운리-9호, 63호, 10호-1층, 35호 등의 출토품이 동일하다고 유추하고 있다.<sup>108)</sup> 따라서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인근 지역의 청자 생산지로 알려진 진해 태평동과 강서구 녹산동 요지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라 전라도 강진 쪽의 요지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09)</sup>

이러한 만덕동 사지 출토 청자는 사찰에서 직접 유통하여 사용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찰의 중요 단원이었던 지역의 지배세력들이 유통하여 이를 사찰에 시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만덕동 사지의 출토 청자가 후자의 경우라면 지역의 지배세력과 연관 속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동평현의 지배세력은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을 고려할 때 덕천동 고분군이 주목된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덕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청자가 고급 청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고급 청자는 덕천동 고분군의 청자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덕동 사지의 고급 청자는 사찰에서 독자적으로 유통하였을 가능성과 함께 동평현의 재지세력인 향리층이 선악사 주종에 발원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재지세력인 동평이씨 등이 유통시켜, 이를 만덕동 사지에 기진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106) 부산시 용당동 유적에서는 마상배, 향로, 향완 등의 고급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청자만을 한정한다면 용당동 유적지에 대해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용당동 유적은 고려시대 동래현의 공간, 즉 동래현의 지배세력들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107) 강정미, 『경남지역 사지 출토 고려청자의 편년과 특징』, 『문물연구』 13, 2008, 10~11쪽.

108) 강정미, 위의 논문, 10~11쪽.

109) 강정미, 위의 논문, 56~59쪽.

넷째는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잡상을<sup>110)</sup> 통해 살펴볼 수 있다.<sup>111)</sup> 잡상은 장식기와의 하나로 건물을 수호한다는 측면과 함께 장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려시기의 잡상은 고려궁성을 비롯하여 파주 혜음원지, 원주 법천·거둔사지, 강화 선원사지, 여주 회암사지, 당진 안국사지, 함천 백암리사지 등의 여러 곳에서 출토되었는데, 龍頭形·鳥形·人物形·半人半獸形·怪獸形·魚形 6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sup>112)</sup> 만덕동 사지의 잡상을 봉황상으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는데,<sup>113)</sup> 이는 만덕동 사지가 왕자인 석기가 머물렀던 장소로 이해하려는 근거로 주목하기도 하였다. 고려시기 鳥形の 잡상은 만덕동 사지 외에도 개성 고려궁성, 원주 거둔사지와<sup>114)</sup> 법천사지,<sup>115)</sup> 파주 혜음원지, 강화 선원사지, 당진 안국사지,<sup>116)</sup> 양주 회암사지<sup>117)</sup> 등에서 출토되었다.

110) 잡상은 장식기와의 하나로, 선인 10신상(대당사부,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 마화상, 삼살보살, 이구룡, 천산갑, 이귀박, 나토두)과 仙人走獸 10상(용, 봉황, 사자, 기린, 천마, 海馬, 魚, 해치, 후, 원숭이) 등의 형상을 만들어 수호와 불법 홍보를 위한 측면이 있다.

111) 부산박물관, 앞의 책, 1993, 50~51쪽. 부산박물관, 앞의 책, 1998, 28쪽. 복천박물관, 『고고학으로 본 부산의 역사』, 2005, 147쪽. 부산박물관, 『釜山기와·지붕의 품격을 더하다』, 2015, 138~139쪽 참조.

112) 조원창, 『고려시기 잡상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6-1, 2013, 7쪽.

113) 부산광역시 북구·북구 낙동문화원, 『부산북구향토지』, 2014, 657쪽.

114) 사적 제168호이다. 금당지 등을 고려할 때 고려 초기에 큰 사찰의 면모를 지녔다. 법안종의 사찰이었다가 중기 천태종이 유행할 때 흡수되었고, 지금도 원공국사(930~1018) 승묘탑비(보물 제190호)가 있는데, 비문은 최충이 지었다.

115) 사적 제466호이다. 정확한 창건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고려 중기 법상종의 대표사찰로 번성하였고, 특히 지광국사(984~1067)와 인연을 많이 가진 곳으로, 지금도 지광국사 현묘탑비(국보 제59호)가 있다.

116) 정확한 창건 시기를 알 수 없지만 2004년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태평십(太平十)’명(현종 21, 1030) 명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사지에 있는 불상(보물 제100호)과 석탑(보물 제101호), 그리고 명칭을 고려할 때, 고려왕조를 수호하기 위한 사찰로 추정된다.

117) 사적 제128호이다.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보우선사(1301~1382)의 圓證國師塔碑에 의해 1313년(충숙왕 즉위) 이전에 이미 사찰이 창건되었다고 추정하고, 또는 충숙왕 15년(1328) 인도의 승려 지공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는데,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중기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공의 제자인 나옹이 우왕 2

특히 혜음원지는 원, 행궁, 절 등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유명한 곳이고, 합천 백암리 사지를<sup>118)</sup> 제외한 다른 사지들은 고려시기 사찰의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았던 곳이었다. 따라서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잡상은 앞에서 서술한 조형의 잡상이 출토된 사찰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만덕동 사지의 위상을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잡상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안국사지의 잡상(조형 잡상 1, 1-1)<sup>은119)</sup> 목은 짧고 풍만한 배의 모양으로 11세기 전반으로 파악하고 있고,<sup>120)</sup> 선원사지의 잡상(조형 잡상 1)<sup>은121)</sup> 머리만 남아 있는 경우로 목이 가늘고 길고 부리는 날카롭게 돌출되어 있는 새 모양으로 13세기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22)</sup> 회암사지의 잡상<sup>은123)</sup> 삼각형의 머리와 뾰족한 부리가 돌출된 새 모양(조형)으로<sup>124)</sup> 14세기 후반으로 파악하고 있는데,<sup>125)</sup> 세부기법이 마치 봉황<sup>126)</sup> 혹은 주작과 같이 부리, 뿔, 날개, 몸체 등에서 섬세한 표현기법이 묘사되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sup>127)</sup> 이처럼 고려의 잡상은 초기 추상적인 모습에서 점차 사실적으로 변화하다 마지막에 예술적 장식으로 변화하였

년(1376)에 중창하였는데, 조선전기까지만 하여도 전국에서도 큰 절이었다.

118) 伯嚴寺·白巖寺로 불리었으며, 『삼국유사』 권3, 탑상4 백암사 석탑사리조에 의하면 ‘함흥 원년(1065; 문종 19) 得奧微定大師가 5층석탑에 진신불사리 42과를 봉안하였다(咸雍元年十一月當院住持得奧微定大師釋秀立定院中常規十條, 新豎五層石塔眞身佛舍利四十二粒安邀)’는 기록이 있다. 백암사(백암사)는 고려 때 융성한 사세를 보유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합천박물관, 『백암리절터, 마음 비추는 법등만 남아 있다』, 2020).

119) 조원창, 앞의 논문, 19쪽 <사진 24, 25> 참조.

120) 조원창, 위의 논문, 31쪽 <표 2> 참조.

121) 조원창, 위의 논문, 18쪽 <사진 20> 참조.

122) 조원창, 위의 논문, 31쪽 <표 2> 참조.

123) 조원창, 위의 논문, 22쪽 <사진 32> 참조.

124) 조원창, 위의 논문, 21~22쪽.

125) 조원창, 위의 논문, 31쪽 <표 2> 참조.

126) 조원창, 위의 논문, 24쪽.

127) 조원창, 위의 논문, 31쪽.

다고 한다.<sup>128)</sup> 그런데 만덕동 사지의 잡상은 부릅뜬 눈과 들창코·혀를 길게 뺀고 입을 크게 벌린 모양으로 볼 때 용의 모습을 띠고 있고, 깃과 비늘, 부리 등이 표현되어 있어 불려진 눈, 뛰어 나온 관자놀이가 돋보이는 형태가 봉황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sup>129)</sup> 주작과 봉황은 상상 속의 새이지만, 만덕동 사지는 회암사지처럼 봉황의 형상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1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잡상이 아닐까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덕동 사지는 13세기 전후시기에 봉황의 잡상을 통해 건축물의 위용을 갖추었고, 이를 통해 사찰의 위상도 함께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것처럼 만덕동 사지는 3차에 걸친 발굴에서 금당지의 규모와 치미, 고급의 상감청자, 잡상 등의 여러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사지의 위상을 검토하였다. 만덕동 사지는 매우 큰 금당지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미의 규모도 지역에서 건립되는 사찰로서 너무나 크다. 출토된 고급 청자는 자체적으로 유통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평현의 지배세력의 분묘로 유추되는 덕천동 고분군의 피장자가 유통시켰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건물에 건축된 조형의 잡상은 만덕동 사지의 위상을 드러내었다. 만덕동 사지는 출토 유물을 고려할 때 고려의 12·1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최고의 사찰 위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 IV. 맺음말

본고는 중세 만덕동 사지가 위치하였던 공간적 장소와 출토 유물 등

128) 조원창, 앞의 논문, 24쪽.

129) 부산박물관, 『부산기와 지붕에 기품을 더하다』, 2015, 138쪽.

을 통해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덕동 사지는 고려에서 조선초기까지 동래현과 양주의 속현이었던 동평현의 공간적 범위 내에 있었다. 속현인 동평현은 선악사종명을 통해 戶長과 諸長吏 등의 향리세력이 존재하였고, 이들 향리층의 지배를 받았다. 동평현에는 동평이씨의 토성이 존재하였고, 이들 세력은 낙동강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동평현의 지배세력은 영역 내에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덕천동 고분군을 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사찰인 만덕동 사지와 선악사 등의 주요 단월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둘째, 만덕동 사지는 국장생, 당간지주, 3차에 걸친 발굴에서 드러난 금당, 사지 주위의 유물 산포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범위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만덕동 사지의 사명은 ‘祇毗寺’의 기와 명문과 <금산사향완명>에 기록된 ‘기비사’, 그리고 최근 부산·경남 지역에서 발굴된 사지의 명문과 문헌에 기록된 寺名이 일치한 사례를 고려하면, 만덕동 사지는 ‘기비사’로 존재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셋째, 만덕동 사지는 3차에 걸친 발굴에서 금당지의 규모, 그리고 고급의 상감청자, 치미, 잡상 등의 출토 유물을 고려할 때 고려의 12·13 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최고의 사세를 유지하였다. 출토된 고급 청자는 사찰이 자체적으로 이를 유통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의 지배세력의 분묘로 유추되는 덕천동 고분군의 피장자가 고급 청자를 향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로부터 시주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치미의 규모와 건물에 잡상을 시설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만덕동 사지는 이를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제력과 함께 사찰의 위상이 상당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넷째, 고려시기 범어사와 용당동 유적(○守寺, 月天寺)이 동래현의 지배세력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면, 만덕동 사지(기비사·송선사)와

선약사 등은 동평현의 지배세력들의 교류와 후원을 받으면서, 지방사회에서 불교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 나갔을 것이다.

다섯째, 만덕동 사지는 위에서 언급한 유물 외에도 전 등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들도 사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본고에서 모두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는 차후에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과 함께 별도의 글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 1.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동래부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 저서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 덕산리사지』, 2006.  
\_\_\_\_\_, 『동래고읍성지』, 2007.  
경남문화재연구원 · 디앤씨홀딩스, 『부산 금곡동 동원지』, 2006.  
동아대학교 박물관, 『구포덕천동유적』, 2006.  
동의대학교 박물관, 『부산 망미동 동래 고읍성』, 2006.  
부산광역시 북구 · 북구 낙동문화원, 『부산북구향토지』, 2014.  
부산박물관, 『부산덕천동고분군』, 1983.  
\_\_\_\_\_, 『부산만덕사지(유적조사보고서 제7책)』, 1993.  
\_\_\_\_\_, 『당감동성지』 I, 1995.  
\_\_\_\_\_, 『당감동성지』 II, 1998.  
\_\_\_\_\_, 『부산만덕사지』 II, 1998.  
\_\_\_\_\_, 『釜山기와-지붕의 품격을 더하다-』, 2015.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지(하)』, 1974.  
 \_\_\_\_\_, 『부산시사( I )』, 1989.  
 복천박물관, 『고고학으로 본 부산의 역사』, 2005.  
 \_\_\_\_\_, 『부산만덕사지』Ⅲ, 2007.  
 통도사 법보원, 『불교사전』, 1961.  
 합천박물관, 『백암리절터, 마음 비추는 법등만 남아 있다』, 2020.  
 구산우, 『고려향촌지배체제연구』, 해안, 2003.  
 김당택, 『원간섭하의 고려정치사』, 일조각, 1998.  
 노명호 외 7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1)』, 서울대 출판부, 2000.  
 염영하, 『韓國의 鐘』, 서울대 출판부, 1998.  
 최정환, 『고려·조선시대 녹봉제 연구』, 경북대출판부, 1991.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 연구』, 해안, 2005.  
 황수영, 『한국금석유문(3판)』, 일지사, 1985.

### 3. 논문

강정미, 「경남지역 사지 출토 고려청자의 편년과 특징」, 『문물연구』 13, 2008.  
 김기섭,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국민족문화』 8, 1996.  
 구산우, 「나말여초의 울산지역과 박윤웅-藿所의 기원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연구』 5, 1992.  
 \_\_\_\_\_,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 『향도부산』 20, 2004.  
 김동철, 「상업과 화폐」, 『신편 한국사』 14, 1993.  
 민현구, 「고려 공민왕의 즉위과정」,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 1981.  
 박종기, 「고려 태조 23년의 군현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19, 1988.  
 박종진, 「고려시기 ‘수취단위’의 의미와 속현의 지위」, 『역사와 현실』 32, 1999.  
 배상현, 「고고학적 조사 성과로 본 고려시대 경남지역의 불교 사원-유적의 현황과 공간으로의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38, 2014.  
 송계현 · 최정혜, 「萬德寺址 發掘調査概報」, 『연보(부산시립박물관)』 13, 1991.  
 신은재, 「공민왕 즉위초 정국의 동향과 전민변정」, 『한국중세사연구』 29, 2010.  
 이광린, 「경주인 연구」, 『인문과학』 7, 1962.  
 이근열, 「부산 기비현(其比峴) 말미 연구」, 『지명학』 13, 2007.  
 \_\_\_\_\_,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 부산지명 연구」, 『우리말연구』 41, 2015.  
 이종봉,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향도부산』 20, 2004.

- \_\_\_\_\_, 「나말여초 양주의 동향과 김인훈」, 『지역과 역사』 13, 2003.
- \_\_\_\_\_, 「초계출신의 유학자, 정배걸」, 『고려시대 경남 사람들(내손안의 경남 11)』, 선인, 2019.
- 정요근, 「후삼국시기 고려의 州·府 분포와 그 설치 의미」, 『역사와 현실』 73, 2009.
- 정용숙, 「고려시대의 동래」, 『동래구지』, 1995.
- \_\_\_\_\_, 「신라·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정비와 기장」, 『한국민족문화』 8, 1996.
- 조원창, 「고려시기 잡상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6-1, 2013.
- 채상식, 「고려시대의 부산-인물과 문화-」, 『부산시사(1)』, 1989.
- \_\_\_\_\_, 「고려중기의 정치정세와 동래정씨」, 『역사와 세계』 28·29, 2005.
- 최정혜, 「부산 만덕동사지 사명 고찰」, 『부산박물관연구논집』 11, 2004.
- \_\_\_\_\_, 「부산 송선사지와 출토 유물」, 『부산박물관연구논집』 15, 2009.
- 坪井良平, 「朝鮮鐘の補遺資料」, 『조선학보』 16, 1960.

## | Abstract |

## The History of Medieval Busan and “the Mandeok-dong Temple Site”

Lee, Jong-Bong

This paper examines through a place of the Mandeok-dong temple site and excavated objects,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from the Goryeo to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Mandeok-dong temple site was within the extent of Dongpyeong-hyeon(東平縣) where was Dongrae-hyeon · gun(東萊縣 · 郡) and Yangju · Yangsan-gun`s Sokhyeon(屬縣). In the Dongpyeong-hyeon, according to Seonaksa-Jongmyeong(鐘銘), there were Hyang-Ri(鄉吏) group -Hojang(戶長), Jejangri(諸長吏) and others-, it was governed under them. And also an indigenous family name of Dongpyeong Lee Clan existed, this power would have accumulated economic wealth stand on the basis of Nakdonggang River. Based on this economic wealth, Dongpyeong-hyeon`s ruling power not only built the Deokcheon-dong Ancient Tombs but also existed as the Mandeok-dong temple site and Seonaksa temple`s major Danwol(檀越).

Secondly, contemplating that Gukjangsaeng(長生標), Danggangiju(幢竿支柱), Geumdang(金堂)(was revealed in three-time excavation), an area of scattered antiquities around temple site, the Mandeok-dong temple site had a considerable range of temple domain, Considering that the name of the temple site in Mandeok-dong coincides with the inscriptions of the roof tiles of ‘Gibisa’, the Geumsansahyangwanmyeong, and the inscriptions and documents of the recently excavated temple site in Busan and Gyeongnam, it can be seen that the temple`s name is ‘Gibisa’.

Thirdly, the scale of the Geumdang site was found in the three-time excavation of the Mandeok-dong temple site, and also important relics such as high-quality inlaid celadon porcelain, Chimi(鷗尾), Jabsang(雜像). Considering that, it would have maintained the supreme influence in the period around the 12th and 13th centuries of the Goryeo Dynasty.

**Key Words :** Dongpyeong-hyeon(東平縣), Gibisa(祇毗寺),  
Geumsansahyangwanmyeong(金山寺香完銘), Chimi(鷗尾), Jabsang(雜像)

